

우즈베키스탄 시장의 환경 평가와 경제교류 전략의 방향성 분석

An estimation on the market environment of Uzbekistan and the strategic direction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김중관(Joong-Kwan Kim)

동국대학교-서울, 국제통상학과 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가치 | 참고문헌 |
| III. 자원 및 경제 환경 분석 | Abstract |
| IV. 시장성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establishing strategies to ensure entry to the Uzbekista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business opportunities and managing industry. The study provides initiatives to maintain industrial competitiveness as well as policy guidance for entry and management on the Uzbekistan's industry. The most prominent feature of Uzbekistan's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during the past decade is that it has undertaken an integrated policy approach to development which brought about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development process, trade policy, manpower development policy, and technology policy were well coordinated and complementary to industrial policy in the Uzbekistan.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Uzbekistan's custom and system in terms of broad industrial policy concept through resource and economic environment of Uzbekistan and to derive some lessons of market evaluation and policy implication for Korean government and industrial line.

Key words: Uzbekistan, central Asia, development strategy, economic cooperation

I. 서론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안정적 경제성장과 높은 인구증가율을 바탕으로 시장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협력 진출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 하에서 역내 핵심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체계적인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협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국내정치 상황, 부존자원, 시장경제 이행 및 경제개방 정도가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교류 정책은 개별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의 전략적 가치 그리고 주변국과의 유기적인 연관성 속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을 통하여 중앙아시아의 지역거점으로 확보하는 한편, 경제 지원을 통하여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진출 계획과 장기 정책 방향의 제시 및 통상확대와 투자진출 측면의 최적한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지속적인 통상시장 개발을 위한 미개발 상품수출시장 진출가능성이 크고, 현지 자본투자 및 각종 건설 및 자원개발 사업 참여 기회와 더불어 35만 명에 달하는 중앙아시아 역내 거주 고려인의 권익 보호 및 유대 강화와 협력을 위한 교두보 역할도 중요하며, 특히 우리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통상 정책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데 거점 지역이다.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자본 및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건설, 운송 등 제반 경제·통상 관련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와 특성을 확인하여 차별화된 투자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시장을 개척하고 선점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종합적인 우즈베키스탄 진출전략 수립하고, 시장개척을 위한 한국 정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체계 확립과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이 본 연구의 주요 과제이다.

이 논문은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특성을 확인하고, 장기 전망을 통해 통상투자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며, 한국의 진출목표 및 방향을 모색한다. 세부적으로 개별기업의 진출전략의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제도 관행과 협력조건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시장성, 성장가능성, 경제발전 잠재력, 통상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의 우즈베키스탄 지역 개발측면에서 세부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가치

1. 중앙아시아내 지정학적 정책

우즈베키스탄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이후, 새롭게 변화하는 중앙아시아 비석유 수출 3개국 중 진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우즈베키스탄이 지니는 가치는 이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국의 치열한 진출전이 증명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아시아에서 중동과 유럽으로 진입하는 비단길(silk road) 문명의 중심지였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점을 확보 및 유지하기 쉬운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국가간 에너지자원의 운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억 달러가 소요되는 1400km의 중앙아시아 국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이 도로는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카쉬미르까지 연결되는 에너지와 물류의 신경계 역할을 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¹⁾의 지리적 환경은 역사 발전과정에서 주변 강대국간 교역로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력경쟁의 장이 되어 왔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는 중심의 방대한 내륙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라시아내에 4개의 강대국과 인접하고 있고, 동서남북을 연결시켜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직후 이슬람계 우랄알타이어족 5개국 정상들과 중앙아시아 공동체로 합의하였다.(Dowling, 2005 p.25) 인접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소비에트연방 붕괴 이후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에 1991년12월 가입하였으며, UN에도 가입하였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의 협력은 물론 NATO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NATO-pf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EU와 동반자 및 협력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의 경우, 1996년 관세동맹으로 창설되어 2000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로 발전된 EURASEC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참여하고 있다.²⁾ 그리고 중앙아시아 5개국은 이란, 터키, 파키스탄에 의

1) 중앙아시아의 전체 면적은 398만7천 km²로서 한반도의 약 18배 크기이다. 전체인구는 현재 5855만 명으로 우즈베키스탄 인구가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2720만 명이고, 면적은 44만7400km², GDP 성장률은 7%, 우리나라와 교역액은 년 6억7천만 달러, 주요자원은 가스, 석유, 석탄, 금 등이다 다민족 혼재 특성으로 민족구성비는 우즈베크인 80%, 러시아인 5.5%, 타지인 5%, 카자흐인 3%, 카라칼파크인 2.5%, 타타르인 1.5%, 기타 2.5%이며, 종교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순니 이슬람이다. 언어는 우즈베크인들은 터키계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인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다. (CIA World Factbook, 2009, <http://www.odci.gov/cia/publications/factbook/index.html>)

2) EURASEC의 목적은 완전한 관세동맹의 구축과 EU와 유사한 공동 경제공간을 창설하는 것이다. 역의 국가로는 벨라루시와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이 2006년 1월 가입함으로써 현재 가맹국은 6개국이다. (Uzbekistan

하여 1985년에 창설된 '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ECO)'에 1992년부터 참여하고 있다(김대성 2001). ECO는 회원국간 교역, 공동 에너지 기구, 공동 상업은행 설립 등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역외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자 안보협력체에 참여하고 있다. 1996년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창설된 SCO에 2001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이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고 협력범위도 포괄적인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SCO는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극단주의, 반테러, 분리주의에 공동 대응하면서 포괄적인 협력체로 발전되고 있다.³⁾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더불어, 우즈베키스탄은 터키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하여 창설된 '투르크 협력(Turk Cooperation)'에 참여하고 있다. 투르크 협력은 터키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간 문화 협력 및 교류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정치 및 외교 · 안보정책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은 독립 이후 헌법 개정 등을 통해 권위주의적으로 통치 기반을 강화해왔다. 소비에트연방 당시인 1990년3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제1서기는 공산당 최고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이어서 1991년12월 대선에서 86%를 득표, 5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개헌 국민투표(1995년3월)를 통해 1996년12월 만료 예정이던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고 양원제 의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국민투표(2002년1월)를 실시하였고, 90% 이상의 지지율로 현재까지 통치기간을 성공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 키르기스스탄 등 소비에트연방국가들의 시민혁명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국 내 반정부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⁴⁾ 2005년5월 안디

joins EurAsEC." <http://en.rian.ru/analysis/>.

- 3) 이슬람 무장단체인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운동(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IMU)'이 투쟁자금 확보를 위해 마약 밀매에 깊이 개입되어 있고, 외화 획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군벌들이 음성적으로 양귀비 재배와 헤로인 생산을 강행하고 있다.(장병욱, 2001. pp.72-73).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어진 IMU의 무장투쟁은 마약밀매와 판로개척으로 조직범죄를 가져와 사회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는 IMU 외에도 1952년에 중동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주로 농촌지역의 사회불만세력을 대상으로 한 무장조직인 HuT(Hizb-ut-Tahrir)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 남부지역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우즈베크인, 타지키스탄의 일부 우즈베크인 등이 2등 국민취급에 불만을 품고 HuT에 가담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 양귀비 생산의 75%를 차지하였으며, 러시아와 유럽을 대상으로 헤로인 수출의 50% 이상은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Cornell, 2005; Tursunov, 2002)
- 4) 카리모프 대통령은 독립 이래 민족주의에 입각한 세속주의 국가(secular state) 건설을 주창해왔다. 그러나 이슬람국가 설립을 목표로 하는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MU), 이슬람해방당(HuT) 등에 의한 이슬람 과격 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1998년 종교법을 제정, 타지키스탄 내전 및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따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국내 유입 저지에 주력했다. 타슈켄트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암살미수사건(1999년2월)을 포함한 여러 차례 폭탄테러가 발생하자, 2001년

잔 유혈진압사태는 국내정치적 위기를 더욱 고조시켰고 국내 통제력을 더욱 강화한 카리모프 대통령의 정국 장악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대외적으로는 CIS 회원국으로서 러시아 및 CIS 내에서의 경제·사회 분야 협력을 강화하면서 군사·안보 면에서는 독자노선을 추구해왔다. 특히 경제개발을 위해 미국, 유럽 등 대서방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인접국가 및 터키 등 이슬람 경제협력기구와의 교류·협력 확대에도 주력해왔다. 우즈베키스탄은 당시 러시아와는 CIS 정상회의 등에 참여하였으나, 교역 대상국 수준의 관계로 유지하면서, 탈러시아적 성향을 보였다. 9·11 사태 이후, 하나바드 공항을 미군에 임대하여 미국 주도의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적극 협조하였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무력공격을 지지(2003년3월)하는 등 지역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에 적극 동참하였다.(Allison, 2004 p.277) 그러나 2005년 발생한 안디잔 유혈진압 사태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은 안디잔 사태에 대한 미국의 진상 규명과 민주화 압력에 카리모프는 군사기지 제공을 철회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러시아로 정치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Ⅲ. 자원 및 경제 환경 분석

1. 자원보유 현황

우즈베키스탄은 확인 석유매장량 3억, 잠재량 5억 배럴로 카스피해 접경 중앙아시아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낮으나, 가스의 경우, 추정량 35 Tcf(trillion cubic feet)로 경제성이 크다.⁵⁾ 중앙아시아의 석유자원은 40%가 카스피해에 매장되어 있으나, 천연가스 대부분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매장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금은 세계 매장량의 5위, 우라늄은 세계 매장량의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아직 개발되거나 탐사되지 않은 광물자원이 많으며, 이에 따라서 장기적 투자의 필요성이 크다.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 이후로, 금, 에너지, 원면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서 금과 원면의 수출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 가스 에너지 수출도

말부터 반정부 활동 봉쇄를 목적으로 IMU 및 HuT 조직원에 대한 검거를 확대하였다.

5) 카스피해에 주로 매장된 석유 및 천연가스는 중동지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자원(석유 3천억 배럴, 천연가스 20조 입방미터)이다 (김중관, 2006).

계속해서 증가추세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자원 생산량을 주로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자원 보유량은 큰 편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채굴 면에서 CIS 국가들 가운데 3위로, 연간 600억 m³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우라늄은 세계 5위, 매장량은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가 지질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7지역에 우라늄 산지가 있으며, 전체 확인매장량은 5만 5000톤으로 평가 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금 매장량 면에서 세계 4위, 채굴면에서는 7위를 차지하고 있다.

2. 산업 구조

우즈베키스탄은 산업부문에서 정부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토지의 사유화를 금지하고 곡물강제수매제도를 실시하여 경쟁력을 약화되어 있으며, 에너지부문에서도 이 증가가격제도를 실시하여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국가통제로 인하여 자본도피와 지하경제가 만연하는 한편, 국가의 환율 개입으로 환율이 고평가되어 있어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자원 수출 비중 2005년 이래로 중앙아시아 전체 10% 정도로 년간 5300만 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함께 에너지자원 비수출국은 농업, 광업 등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발달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GDP 성장률 동향을 살펴보면, 1992-96년(-3.4%, 기간평균), 1997-2001년(4.4%), 2002-04년(5.2%), 2005-08년(6.9%)로 나타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GDP 성장률을 시기별로 나누어 비교하면,⁶⁾ 제조업 비중이 정체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는 제조업의 침체에 따른 상대적인 비중 증가로 추정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1990년 중반 이후 연간 5% 내외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다가, 2003년 이후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2004년 7.7%, 2008년 7%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성장동력은 농업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5대 면화생산국이자, 2대 수출국으로 2008년 기준 원면을 포함한 농업이 GDP의 약 26.2%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의 농업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04년을 기점으로 4-6%대에 머물던 농업생산증가율이 이후 10%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우

6) 체제전환 초기인 1992-96년 기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 해가 거듭될수록 GDP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DP 비중 변화를 1995년에서 2005년의 10년 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농업(32.4%, 28.1%), 제조업(27.8, 28.7), 서비스업(39.8, 43.2) 나타난다. (ADB, 2006)

즈베키스탄은 체제개혁 초기부터 민영화, 대외개방 등 IMF의 신자유주의적 권고안(워싱턴 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을 거부하고 국가의 경제통제하에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유효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제조업 생산성은 년평균 8.6% 증가했으며, 제조업의 GDP 비중은 2004년 25.2%에서 2008년에 28.2%까지 높아졌다.

〈표 1〉 우즈베키스탄의 교역관계 지표

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
GDP	억 달러	120	143	170	223	260
	성장률(%)	7.7	7.0	7.3	9.5	8.6
	1인당 GDP	464	545	642	829	955
인구(만 명)		2590	2620	2650	2690	2720
소비자물가상승률(%)		9.1	12.3	11.4	11.9	12.0
평균 환율(USD)		1020	1115	1238	1288	1383
교역	전체(억 달러)	73.2	80.6	94.6	137.6	163.2
	수출(억 달러)	42.6	47.5	56.1	80.3	98.4
	수입(억 달러)	30.6	33.1	38.4	57.3	64.8
	수지(억 달러)	12.0	14.4	17.7	23.0	33.6
경상수지(억 달러)		12.1	19.5	29.3	42.7	56.3
외환보유고(억 달러)		21.4	28.9	44.6	74.1	101.5
국가외채(억 달러)		48.3	43.0	38.9	39.3	39.5
실업률(%)		0.6	0.7	0.8	0.8	0.9

주1: 실제수치 2009년 6월 기준

주2: 외환보유고는 금 제외 수치

주3: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IMF 기준

자료: E.I.U., ADB, Global Insight, 2009.

우즈베키스탄은 면화, 금 등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농업은 2004년 기준 GDP의 26.8%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5대 면화생산국이자 2대 수출국이다. 면화의 수출은 총수출의 20%를 차지하여, 1990년대 40%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절반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수출품목이다. 정부는 국가곡물 구매제도를 운영하여 면화의 생산 및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이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으로 재분배되면서 농업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7) 이에

우즈벡 정부는 생산된 면화 일부를 시장에서 자유 거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금은 제2의 수출품목으로, 2002-05년 총수출의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금 채굴량은 연간 생산량이 약 86톤(2001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9위 수준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에너지개발과 농산물의 자급자족을 최우선 정책과제이다. 소비에트 연방 체제하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원면 생산의 약 60%를 점하였으며, 원면은 우즈베키스탄 전체수출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단일품목 경작에 의존한 경제구조 하에서는 균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너지와 식량의 생산을 우선적으로 대폭 증가시켰다. 이러한 정부주도 산업정책에 따라서 가스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여 에너지의 국내자급률이 높아졌다.(Heritage Foundation, 2006)

최근 정부가 제조업 육성을 위해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생산구조는 농업비중이 줄어들고 제조업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농업의 GDP 비중은 2005년에 28.1%까지 떨어졌고, 수출품목도 다양화하여 2003년에 면화와 에너지 두 부문의 수출비중이 29.6%로 낮아졌다. 한편 시장경제체제 이행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유입 부족에 따른 자본 부족, 지속적인 경제침체, 지속적인 정부개입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은 낙후된 상태이다.

3. 경제발전전략

우즈베키스탄의 2010년까지 완성되는 중기후생증진 전략(Interim Welfare Improvement Strategy Paper: I-WISP)은 2003년 26.2%에 달했던 극빈선 이하의 인구비율을 20%로 축소할 계획이며, 연간 8.5%의 경제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5% 이내의 물가안정, 연간 12%의 투자증가율과 수출증가율 유지 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⁷⁾ 우즈베키스탄은 섬유산업을 집중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육성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섬유산업 육성정책에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대외지향적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2005-08년 기간에 총 94건의 투자프로젝트에 12억2천만 달러의 외국인투자유치 프로그램⁹⁾을 추진하였다.

7)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소련시기 정책을 유지하여 국가곡물수매제도(Goszakaz)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강제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독점적으로 판매하는데, 발생하는 수익은 국내 제조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으로 재분배되거나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흡수된다. 또한 정부의 농산물 수출시기가 적정 수매시기보다 늦음에 따라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농민들의 실질소득이 하락하고 있다. 면화산업의 경우, 국영기업(Uzauktionavdo)이 면화의 구매가격을 결정하고 수출을 독점하고 있다. 2003년 이후로는 산출량의 일부에 한해서 농민들에게 자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농업부문의 국가통제는 지속되고 있다.

8) 이러한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을 '우즈벡 패러독스(Uzbek Paradox)'라 부르는데, 우즈베키스탄이 IMF의 경제처방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오히려 농업과 제조업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사유화 및 자유화를 기치로 대외지향적 시장경제를 추진했던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지금까지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기조로 자국 산업의 육성에 집중하였다.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통하여 단기간에 가시적인 경제성장의 효과를 목표로 하였다. 한편 면화와 금의 국제시세가 지속적인 상승세이고, 농업부문의 수출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에너지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면서 잉여 에너지의 수출이 가능해진 것도 개혁 초기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차 상품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자국의 제조업 육성에 투자하는 수입대체산업화전략으로 세계경제와 소통이 차단되고 있어서 개방경제로 쉽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는 쉽게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외지향적 경제 구조 구축, 민간부문 강화 및 정부통제 완화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의 유산인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유지 때문에 사유화 정착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투자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투자환경과 금융산업은 폐쇄경제의 환경에서 자본도피와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즈베키스탄 경제에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정부재정의 확충이다. 또한 비교우위에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무리한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의 지속적인 추진과 모든 경제적 자원을 자급자족 구조에서 탈피하여 1차산업과 노동집약적 상품수출 중심의 개방통상정책과 외국인투자유치정책으로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4. 한국의 협력관계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경제성장 및 높은 인구성장률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향후 한국과의 경제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다자안보 구축의 중요한 축이며, 한국의 외교적 개척지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우즈베키스탄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1998년), 투자보장협정(2006년)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 내구소비재와 섬유, 합성수지 등 소비재이

9) 현대적 생산설비를 도입하고 첨단 면·원사 처리기술을 적용해 고급제품을 생산하며, 건직물 생산설비를 2010년까지 현대화하는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연간 섬유제품 수출액을 11억7천만 달러로 증대시키고, 4만6400명을 신규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며, 수입은 철강, 금속제품, 농산물, 섬유사 등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1월기준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직접투자는 총164건에 9억1974만 달러였다. 이는 한국 기업의 전체 해외투자건수의 약 0.5%, 투자금액의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주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직접투자는 2008년1월 기준으로 98신고건수에 신고금액은 6억9532만 달러이고, 실제투자 66건수에 투자금액은 4억8478만 달러로 한국수출입은행은 발표하였다. 2010년 5월 까지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5회의 정부간 교류와, 대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는 4억2660만 달러는 우즈베키스탄의 자원 개발 및 가공, 그리고 가전, 섬유 등 제조업분야에 집중되었다.

<표 2>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교역량 추이 (단위: 달러)

지표		2000	2007
교역총액		3억 3440만	6억7053만
교역	수출(FOB기준)	2억3041만	6억1258만
	수입(FOB기준)	1억399만	3895만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수출입은행 무역통계, <http://www.koreaexim.go.kr>, 17, May, 2010.

우즈베키스탄은 제도적으로 시장경제의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절대적이다. 소비 시장도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의 지불능력, 따라서 중간층의 형성이 성숙되지 않아서 한국 제조업 제품의 판매 시장은 특정 소득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계층적 소득규모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자원가격의 상승에 따른 국영기업의 경상수지 흑자에 원인이 있다. 결국 구매력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발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협력은 자원관련 SOC 건설 진출과 한국의 중간재 산업과 자원개발을 연결하는 모형이다. 수직적으로 위계화된 모형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전략적 동맹(Strategic Alliance)의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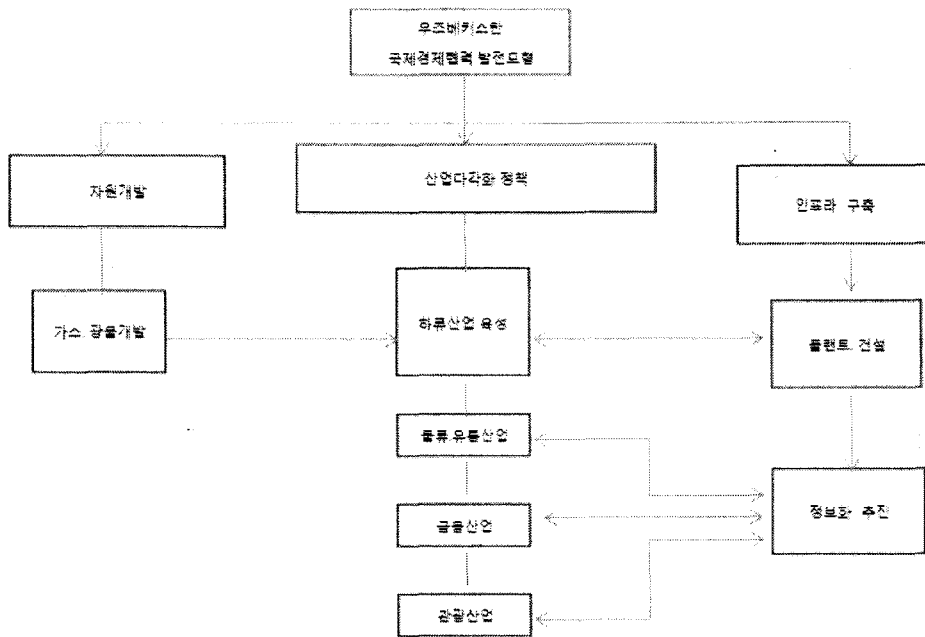
10)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가 풍부해 CNG가격이 휘발유 대비 약 29% 수준에 불과하며, 가스의 지속적인 생산량 증대가 이어지고 있다. CNG충전소는 2009년 50개소에서 2010년초 127개로 늘어나는 등 사업성이 밝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나보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부하라-끄르끄스 고속도로 공사 등 우즈베키스탄 내 국책 건설사업에 대한 국내 건설업체들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IV. 시장성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시장성 평가

1) 우즈베키스탄의 통상 투자 환경

우즈베키스탄은 장기적으로 우리와의 경제협력 잠재력이 클 뿐 아니라, 거점화하여 인접한 국가로 진출하기에 유리한 진출거점의 역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문화, 제도, 관습 및 경제 발전의 정도가 상이한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하여 효율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분야별 경제발전 구조의 관점과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경제교류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림1 참조)



<그림 1> 우즈베키스탄의 분야별 경제발전 구조

경제협력과 투자 및 통상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성, 성장성, 경제발전 잠재력, 통상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시장성 요소는 GDP, 1인당 GDP(시장환율 기준), 수출입규모 등을 들 수 있으며, 성장성 요소는 실질 GDP 증가율,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등의 항목별 비교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경제발전 잠재력 요소는 자원부존, 지리적 입지, 역내 경제

통합체에서의 역할 등을 비교할 수 있으며, 통상환경 요인은 GDP 대비 민간부문 비중, 시장 및 교역 자유화, 금융자유화 정도 등 시장개방도와 관련된 사항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시장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의 통상진출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중앙아시아 석유자원 비수출국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시장성이 가장 높으며, 수출입규모 면에서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시장성 지표는 2009년 추정 기준으로 인구 2720 만명, GDP 260억 달러, 1인당 GDP 955 달러(시장 환율), 수출액 98.4억 달러, 수입액 64.8억 달러이다. 우즈베키스탄이 석유자원을 소규모 보유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수출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리적 입지의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아시아와 CIS 전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어서, 진출거점지역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15년까지의 연평균 7% 내외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예측 우즈베키스탄의 시장성은 먼저 인구 3100만 명, GDP 296억 달러, 1인당 GDP 950달러(시장 환율), 수출액 1190억 달러, 수입액 107억 달러(Global Insight, 2006)로 예측된다.

우즈베키스탄은 2002년에 기업환경 개선과 더불어 은행현금 인출절차 개선, 세제특혜 확대 등 시장 친화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세계 불안, 수입관세 인상을 통한 대외거래 축소, 기업에 대한 도매무역 의무준수사항 강화 등으로 시장환경은 악화되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현금사용계획(cash plan) 제출관행 철폐, 일부 대외거래 자유화 조치 단행, 사업허가 시스템 개선 등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 거래에서 나타나는 장애요소를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첫째, 기업 운영에 문제점은 환전문제 금융이용 어려움, 수출입 통제, 조세제도 등이 우선적 적응요인이다.

둘째, 허가, 등록, 검사제도 등은 절차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검사, 등록 등 관련 등록창구 단일화, 불법검사 문제 등이 장애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사업 개시 전에 평균 5가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조세제도는 기업 진출을 저해하는 문제점 중 하나이며, 빈번한 세법 변경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조세부담은 총수입의 23% 수준이었으나, 지역별로 커다란 편차가 확인된다. 기업 측에서는 세율, 세금종류, 과세대상소득 계산방법 문제, 규정 변경 등 전반적인 조세제도 운용방법이다.

넷째, 은행을 효율성이 낮은 금융 중개기관 수준이다. 국가가 은행에 대해 금융기관으로서 부적절한 기능을 부여, 기업들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외거래 통제로 기업의 대외거래활동에 제약요수가 되고 있다.

다섯째, 다양한 수출특혜가 있으나, 수출에 종사하는 기업은 4%이내이며, 절차·관리상 요인이 수출장벽이면서 가격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별로 제반 관리절차의 복잡성, 기간 등에서 지방정부가 사업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제도적 특성에 따른 준비

기업 활동에 따른 권리·책임 등에 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지역별로 제반 관리문제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 협력 및 통상 투자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허가제도는 ‘허용’과 ‘승인’의 개념과 대상품목 리스트 및 표준 분류 등을 정의하는 통합법률이 존재하고 있어서 경제·사회적 편익·비용 분석을 토대로 허가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허가(permit) 준수사항 이행이 용이한 경우에는 신청주의 채택하고 있으며, 사전 승인(approval)이 필요한 허가 발급시 창구가 달라서 절차가 어렵다.
- ② 등록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세 등록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거부되지 않으면 공식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등록·허가 표준형식을 마련하여, 이를 각 사업단위 협회, 상품생산자·기업가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Baker 2005)
- ③ 면허제도에서는 면허대상사업 수, 신청서류, 비용 등이 적지 않으므로, 기업에 대해 면허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정보의 지속적 자료화가 중요하다.
- ④ 조세제도는 기업에 대해 조세법의 안정을 충분히 보장 혹은 보증하지 못한다. 기업들로 하여금 장래 세부담 등을 예측이 쉽지 않아서 진출억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법 변경, 조세처우 및 기업 적용실태 등에 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⑤ 금융제도의 특성상 사업비용 충당을 위한 은행 현금인출이 어렵다. 금융기관으로서의 부적절한 은행기능 철폐 검토. 규제당국 및 지방당국으로부터 은행의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 민간부문 리스, 여신조합(credit union), 소규모 여신기구로서의 역할 증대하고 있고, 투자프로젝트 수행기업은 투자기간동안 조세 및 관세법의 변경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피해 최소화 필요가 있다.
- ⑥ 대외거래에서 기업의 독자적인 사업결정을 저해하는 법적요소 제거. 수출계약의 결제조건 규제 철폐 필요하다. 은행 및 세관에 대한 대외거래 계약 등록절차가 복잡하다. 자문기관 및 관세당국에 의한 계약가격 재검토 의무화 요건이 있어서, 기업의 수출입절차와 기업의 권리·책임이 명시되고 신청서, 양식 등이 포함된 정보준비가 필요하다.

4) 진출 준비전략

우즈베키스탄과의 경제교류 및 협력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선 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첫째로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가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험료도 비싼 편이다. 또한 기존에 체결된 다수의 운송협약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이 내륙국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높은 육로수송비용이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의 통상 및 경제 관계에서 법률 규정이 시장경제 원칙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은행업무 및 기타 상거래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비즈니스 활동이 제약을 받는다.

두 번째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모든 거래는 화폐인 ‘숨(sum)’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태환 및 환전업무는 중앙은행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10-30% 가량의 달러만 환전 가능하고 차액은 ‘숨’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숨’은 우즈베키스탄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 가치가 상당히 유동적이다. 더욱이 우즈베키스탄에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 판매분의 일부는 달러로 나머지는 물품이나 또는 ‘숨’으로 지급해야한다. 이밖에도 무역, 투자시에 우즈베키스탄의 은행에 예치된 기업계좌의 현금을 필요한 시기에 출금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이체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타슈켄트 이외의 지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은행업무에 대한 불편함이 존재한다. 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내 기업 지원부의 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은 낮다. ② 현지기업은 정부에 대해 특별한 선호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FDI 경우, 정부부처 접촉이 많을수록 부정적 평가가 자주 나타난다. ③ 향후 1년내 사업환경 개선전망은 크지 않지만, 미래 전망에 대하여 상당히 유보적이다. ④ 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기업별로 정부와의 접촉빈도의 차이가 시장에서 렌티어리즘으로 극명하게 나타난다. ⑤ 현지기업의 76%가 사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에 대한 이해도가 극히 낮으며, 잦은 법률 변경과 맞물려 사업환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기업활동 관련법규가 자주 변경됨으로써 정상적인 교역과 투자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부기관에서 변경된 관련 조항에 대한 자료를 신속히 기업인들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정치적 차원의 주변 패권국과의 관계 변화와 국내정치 불안도 무역, 투자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협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은행업무를 국제적 관행에 적절하게 정착시키고, 진출기업에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도록 정부간 교류를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시사점 및 분석

1) 기본전략

우즈베키스탄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 속에서 그 가치가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의 전략적 거점지이다. 지경학적으로도 막대한 에너지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망한 수출시장 및 자본투자 지역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EU, 러시아, 동아시아, 아랍, 아프리카 등 4개 경제권이 만나는 지역으로서 지경학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일본, 러시아, EU와 미국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치적 균형을 공고히 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이런 강대국들과의 국제 경제질서 속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통상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에 입각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전략적 협력 경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전략적 협력경제는 경쟁 촉진을 위한 국가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보완성을 추구함으로써 자유교역의 이득을 최대한 창출하고 이를 공유하는 상생의 구축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까지 추진되는 ‘중기후생증진전략’을 통해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주요 수출품인 원면과 원면을 가공하는 섬유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설립 경험을 전수받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IT, 섬유산업, 관광산업 등을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과 전략적 협력경제를 추진함에 있어 현지의 경제개발전략과 투자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간 회담 및 정책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대상국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출을 연계·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가치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는 무역 및 투자 증진, 경제개발 원조를 통한 공동번영 추진, 에너지 및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전략적 지역협력을 통한 경제 공동체 구축에 대한 상호이해를 같이 해야 한다.

2) 추진정책

(1) 포괄적 경제협정 체결

우즈베키스탄은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 정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무역 및 투자진출을 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현재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이지만, 지리적

인 장벽으로 물류인프라가 열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WTO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국제무역질서에 편입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양국간 상설 통상협력 채널 구축을 위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상 양자간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주요 경제정책 도입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된 형태이면서 모든 경제관계 전반을 다루는 국가주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정부간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이다.

(2) ODA를 통한 연대구축

우즈베키스탄은 전략적 가치에 비해 한국의 ODA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2006년까지 재정경제부 EDCF 자금원조에서 중앙아시아 전체 비중이 5.4%에 불과하여, 9.8%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을 통해 중앙아시아에 공여되는 대외원조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대외원조규모는 GNI 대비 0.07%의 수준으로 G7국가의 1/5에 불과하다.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한국의 대외원조규모가 2012년까지 GNI 대비 0.25% 까지 확대되는 것이 적정 수준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대외원조 비중을 늘리는 한편, 그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비중을 높이고, 대외원조의 비중뿐만 아니라, 대외원조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에 ODA를 제공하는 것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조성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데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중앙아시아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도 중앙아시아 최빈국에게 제공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비교적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이란 부존자원이 부족한 단점을 딛고, 수출 중심의 대외지향적 정책으로 얻어진 산물이다.

(3) 현지 기업활동 지원

한-우즈베키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력을 진행하는 가운데, 현지에 무역 및 투자활동을 실행하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체제전환 국가의 특성상 무역 및 투자환경이 열악하며 주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도 민간기업에 자율적인 무역 및 투자활동과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민간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역 및 투자 장벽과 위험이 높은 우즈벡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자본력과 기술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투자기업을 위한 무역보험 확대 및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투자기업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기업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 기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투자기업지원센터와 수출지원 제도를 우즈베키스탄에 적용하는 것이다. 투자지원센터는 현지 지출을 계획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들에게 금융·법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 수출지원제도를 설치하여 중소기업들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여 줄 수 있다.

3) 정책적 시사점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추구해야 할 좌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이 수립될 때 우즈베키스탄 진출 전략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지역에서 통상투자의 이익 외에 한국이 추구해야 할 핵심적 목표는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제고와 더불어 카프카즈지역 진출의 교두보 구축, 그리고 고려인의 입지 강화 및 안전 보호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정학적 가치 확인이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중앙아시아 외교를 위해서도 중요한 지역이다. 러시아·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중앙아시아는 훌륭한 외교·안보적 자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밀접한 양자관계 구축은 물론 점진적으로 비정부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해야 한다. 직업교육, 의료보건사업, 환경보전문제 등 다양한 차원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우호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 기업의 개별적 협력을 추진하는 정교한 경제 통상외교가 요구된다.

둘째,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교두보 확보이다. 중앙아시아는 중국 서부, 러시아 남부, 중동, 동유럽으로 연계되는 거점지역이다. 따라서 한국은 新 실크로드 경제권, 신홍 인프라 시장, 중국 서부개발과 연계한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에 소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이다.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간 협력프로젝트 성격을 가지면서도 민간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급속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다목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신도시 건설은 시장개척, 건설, 인프라, 문화, 물류거점 확보의 기반 구축 등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포괄적 진출방안이다. 현재 한국은 많은 신도시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진출전략과 정책 제시, 금융지원과 정보 제공, 민간부문의 위험관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기업은 독자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수행하고 있다. 이 지역이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경제적 가치 외에 다양한 부분에서 중요성이 크므로 기업의 현지 진출시 효과를 극대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해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고려인의 입지 강화이다. 고려인은 우리민족의 역사적 부적응의 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동포이다. 이들이 21세기에는 글로벌 전략의 소중한 자산이며 잠재력이 될 수 있다.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은 고려인 사회의 복원을 위한 지원과 보호는 한국정부의 중요한 책무이다. 보다 전략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고려인 근거지는 와해되어 축출된 동포들은 전 소비에트 영토에 산재되어 있다.¹¹⁾ 고려인의 정체성 복원을 위해 현지 한국학교 설립 지원하여야 한다. 절대적으로 종교성이 배제된 교사 파견과 지원으로 고려인 사회를 주거집단에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현지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한국문화 전수와 직업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 고취와 현지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4) 분석 및 요약

소비에트 연방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유통, 간접자본, 재정 등의 경제구조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계획경제의 분업체제 하에서 특정 자원이나 생산품의 공급지 역할이었다. 이러한 의존적인 경제체제는 독립 후 경제적 자립을 더디게 만드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운송, 전력, 용수 등 국가 경제개발의 기반이 되는 경제·사회 간접자본 확충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진출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민간기업의 적극적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차관 제공과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다. 정부는 경제협력을 통한 투자지원이나 보험을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진출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한 정부 주도의 전략적인 우즈베키스탄 진출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둘째, 외국 진출기업과 차별화된 우리기업 구조에 적합한 진출전략이다. 지역 및 지방의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인도적 차원의 원조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11) 소비에트 연방 붕괴 후 이스라엘 정부의 유대인 정착촌 지원, 독일인 자치지역에 대한 독일 정부의 공격적인 지원사업들을 한국 정부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고려인 공동체 복원하고 자립기반을 갖추어주는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장병욱, 2001 pp. 72-73.).

우즈베키스탄과의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교역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적응하는 제도적 시스템 혹은 경제활동을 위한 법적 체계와 금융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이 안전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현지에 조성한다. 나아가 우즈베키스탄의 청년들을 초청하여 교육하고, 현지의 교육분야에 진출하여 우리 문화를 이식하고,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우리 고려인과 민족적 지원 차원의 우호적 교류를 복원하여야 한다. 이는 현지에 親한국 세대를 육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제한된 영역내에서 지렛대 역할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이는 강력한 세력 국가에 비해 독립적 영역은 제한되지만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이 갖는 전략적인 가치를 획득하는 데는 효과적일 것이다.

단순한 상품수출보다는 유통시장망 구축에 진출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장지배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종합쇼핑몰(Ramstore), 한국계 은행, 호텔 체인과 교육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현지화 전략을 성공시켜야 한다. 종합적인 전략 진출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공동전략 수립과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기업의 진출에 따르는 위험을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에서 보완할 수 있을 때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진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전략 하에 민간부문의 진출을 유도 및 지원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수직적 통치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통치자의 정치적 의지가 대외경제 협력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중앙아시아 현지진출 장애요소인 현지의 법적, 제도적, 인맥 등을 통한 비공식적 거래 관행 및 제도적 진입장벽의 존재, 민족주의 및 자국기업 특혜, 특정 산업별 현지 인적 네트워크 미비, 중앙아시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점이다. 향후에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하여 정교한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자본 및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건설, 운송 등 제반 경제 관련 분야에서 한국기업과 충분히 보완관계가 있다. 향후 한국의 유망 진출분야는 가스를 비롯한 천연자원 개발과 각종 인프라 구축 및 건설 사업 참여를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 자원개발, 섬유, 직물, 가전, 정보통신(IT)산업, 유통산업, 부동산 개발 등이 가능성이 크다. 시장규모, 투자환경, 에너지자원 보유 현황, 산업발전전략 등을 고려 한 차별화된 투자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장개척을 위한 한국정부의 현지진출 기업 지원체계 수립 및 개선이 필요하다.¹²⁾

12) 한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전체 중앙아시아에 1억2천만 달러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에도 통신망 현대화와 교육용 기자재 및 교육훈련 등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지원은 주로 연수생 초

V. 결 론

본 논문은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장기 전망을 통해 통상투자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과 함께 한국의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자원 및 경제환경 분석을 통하여 전략적 가치를 확인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경제적 환경 및 제도 관행과 협력조건을 살펴보고 시장성을 평가하였다. 이밖에 성장 가능성, 경제발전 잠재력, 통상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은 카프카즈 지역뿐만 아니라, 이란, 터키, 아라비아와 문화, 역사, 종교적으로 밀접한 연계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중동전략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유럽과 아시아를 육로로 연결하는 신 실크로드의 주요 연결고리를 포괄하는 거점으로 우즈베키스탄과의 경제 협력가능성이 크다. 장기적 관점에 21세기 새로운 중앙아시아 진출의 지역동반자로서,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을 포괄하는 폭넓은 협력을 목표로 현지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차별화된 계획으로 동반자적 위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아시아 지역과는 우랄·알타이 문화권이라는 공통의 역사, 문화적 유산을 공유한 유대감으로 심리적 거리를 좁혀갈 필요가 있다. 우리기업의 이윤 추구를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현지정부와 기업들의 신뢰를 확보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한국을 역사적 뿌리를 나눈 민족적 동질성을 갖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을 우즈베키스탄의 미래 성장의 모형으로 인식하도록 지원과 이미지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차원에서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서 기본적 고려사항은 한국이 추구해야 할 우선적인 가치 설정이다. 그리고 핵심적 정책목표를 경제협력 확대와 더불어 지정학적 가치의 활용, 카프카즈지역 진출의 교두보 구축, 고려인의 입지강화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한 포괄적인 장기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대성, 「중앙아시아 사회문화」, 한국외국어대학교, 2001.
- 김중관, “카자흐스탄의 경제개발 분석”, 「한국이슬람논총」 16-2, 한국이슬람학회, 2006.
- 장병옥, 「중앙아시아국제정치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1.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정보」, 2010. <http://www.koreaexim.go.kr>, 14, Feb., 2010.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0.
- Allison, Roy, “Strategic Reassertion in Russia’s Central Asian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Vol.80, No. 2, 2004, pp.277-293.
- ADB Review,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9.
- _____. Key Indicators 2006: Measuring Policy Effectiveness in Health and Education, 2006.
- Baker & Mckenzie, Doing Business in Uzbekistan, 2005.
- CIA World Factbook, <http://www.odci.gov/cia/publications/factbook/index.html>, 17, May, 2010.
- Cornell, Svante E., “Narcotics, adicalism, and Armed Conflict in Central Asia: The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Vol.17, 2005, pp. 577-597.
- Dowling, Malcolm and Wignaraja, Ganeshan. *Turning the Corner. The Economic Revival of Central Asia*, Public Policy Research Center, 2005.
- EIU, Country Profile: Uzbekistan, 2009.
- Global Insight, PlanEcon Review and Outlook: Former Soviet Union, 2008.
- Heritage Foundation, 2006 Economic Index of Freedom, 2006.
<http://www.heritage.org/research/features/index>, 14, Feb., 2010.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gional Economic Outlook, 2009.
_____,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Department, 2005.
- IMF Country Report No. 05/131, 2010.
- ISI Emerging Markets, <http://site.securities.com>, 13, Oct., 2009.
- Saat, J. H., “The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onflict Studies Research Center, *Conflict Research Series*, Vol. 9, No.9, 2005 (February).
- Tursunov, Bakhram, “Extremism in Uzbekistan”, Conflict Studies Research Center K33. 2002.
- Uzbekistan joins EurAsEC,” <http://en.rian.ru/analysis>, 28, Dec., 2009.